



광주·전남 선수들 '금빛고을' 골드러시

神弓의 '심공' 미소 '신공' 기보배가 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양궁 여자 리커브 개인전 시상식에 앞서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기보배는 혼성전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양궁 기보배·최미선, 배드민턴 이용대 메달행진...한국 사흘째 종합 1위 지켜

'광주의 딸' 기보배·최미선, '화순의 서툰 활' 이용대 등 광주·전남의 아들 딸들이 8일 빛고을 광주를 빛냈다. <관련기사 2·3·4·5·18면>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닷새째인 이날 한국은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과 국가 태권도의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9개를 추가해 당초 목표했던 25개를 넘어 28개를 획득, 종합순위 1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양궁의 광주의 자매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광주여대 선·후배로 평소에도 절친한 기보배와 최미선은 사대에서 만큼은 냉혹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맞붙어 아웃포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쳤다. 기보배는 1세트에서 29-28로 이겼지만 2세트에서는 29-29로 비기며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이어갔다. 3세트에서 3발 연속 10점을 기록한 최미선에게 28-30으로 진

뒤 4세트도 28-29로 내줬다. 그러나 기보배는 마지막 5세트에서 3발 모두 10점에 꽃으며 30-28로 승리해 5-5 동점을 만들었고, 마지막 한발로 승부를 가리는 아웃포 대결에서 10-9로 극적인 승리를 차지했다. 이용대는 고향인 화순에서 사일한 '금빛 스매싱'을 선보였다. 이용대가 이끈 한국은 이날 화순하니움스포츠펠에서 열린 배드민턴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제압하고 배드민턴 첫 금메달을 목

에 걸었다. 앞서 유도의 김성연은 여자 70kg급에서 금빛 얻어치기를, 펜싱의 송중훈은 남자 사브르에서 '금빛 찌르기'에 성공했다. 아쉬움도 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이 부상으로 조기 퇴장한 것이다. 한국은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 등으로 대회 닷새째 금메달 28개를 수확, 1위를 지켰다. 유도와 양궁에서 각각 8개, 사격과 태권도에서 각각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순위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전체 272개 중 50개가 걸려 있는 육상이 본격화되고, 수영에서도 메달 레이스가 가속화되면서 후반기 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 강국 중국의 후반 질주와 육상 강국 러시아의 추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가치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사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당 의원총회의 사퇴 권고를 수용,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관련기사 6면>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총을 열어 표결 없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추진했다. 유 원내대표 없이 당 소속 의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열린 의총

에서는 김부성 대표가 이번 사퇴 권고에 동의하느냐고 하자, 의원들 다수가 "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사퇴권고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언급한 지 13일 만에, 지난 2월2일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다섯 달 만에 중도 하차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히 친박계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버틴 이유에 대해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며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서울 1시간 단축 호남 관광객 크게 늘었다

호남선 KTX 개통 100일...유통·의료 '빨대효과'는 미미

'1시간 단축'이 준 변화는 대단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이후 11년만에 개통한 호남고속철도는 그동안 '수요 미흡'을 강조하며 호남 투자에 인색했던 정부의 '역지' 논리를 여지없이 깨버렸다. 동시에 호남과 충청·수도권의 인구·물류 이동을 촉발하면서 국토 대개조의 또다른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7면> 호남선KTX 1단계 개통 100일(10일)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소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조기 완공, 광주송정역 역세권 조성, 전남 각 지역으로의 고속철 중심 교통체계 구축,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체계적 관리, 관광객 유치 효과 극대화 등이 향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의 171만7000명에 비해 28.2% 늘었다. 역시 호남측인 전라선은 55만5000명에서 80만2000명으로 44.5%, 경전선은 110만5000명에서 113만6000명으로 2.8% 증가했다. 메르스 영향이 없었던 5월 말까지의 승객수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남선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9000명에서 올해 155만6000명으로 39%나 급증했다. 전라선은 35만2000명에서 57만2000명으로 62.5%, 경전선은 70만6000명에서 79만2000명으로 12.3% 증가했다. 경부선 이용객도 728만6000명에서 732만7000명으로 소폭이나마(0.6%) 늘었다. 이 기간 노선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호남선이 1만9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전라선이 6000명에서 1만명, 경전선이 1만2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경부선은 12만1000명에서 12만2000명으로 모두 늘었다. 거점적인 광주송정역의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4월 한달만 아니라 전 노선에서의 승객 증가를 불러 고속철도가 국민의 발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혜택이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은 공포에 떨게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고속철 상송세를 막지 못했다.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호남선 충북 오송~광주송정 구간이 고속철도화한 4월 2일 이후 지난 5월까지 95일간 호남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모두 220만1000명으로 일반선로를 탈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의 171만7000명에 비해 28.2% 늘었다. 역시 호남측인 전라선은 55만5000명에서 80만2000명으로 44.5%, 경전선은 110만5000명에서 113만6000명으로 2.8% 증가했다. 메르스 영향이 없었던 5월 말까지의 승객수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남선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9000명에서 올해 155만6000명으로 39%나 급증했다. 전라선은 35만2000명에서 57만2000명으로 62.5%, 경전선은 70만6000명에서 79만2000명으로 12.3% 증가했다. 경부선 이용객도 728만6000명에서 732만7000명으로 소폭이나마(0.6%) 늘었다. 이 기간 노선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호남선이 1만9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전라선이 6000명에서 1만명, 경전선이 1만2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경부선은 12만1000명에서 12만2000명으로 모두 늘었다. 거점적인 광주송정역의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4월 한달만 아니라 전 노선에서의 승객 증가를 불러 고속철도가 국민의 발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혜택이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은 공포에 떨게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고속철 상송세를 막지 못했다.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호남선 충북 오송~광주송정 구간이 고속철도화한 4월 2일 이후 지난 5월까지 95일간 호남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모두 220만1000명으로 일반선로를 탈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의 171만7000명에 비해 28.2% 늘었다. 역시 호남측인 전라선은 55만5000명에서 80만2000명으로 44.5%, 경전선은 110만5000명에서 113만6000명으로 2.8% 증가했다. 메르스 영향이 없었던 5월 말까지의 승객수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남선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9000명에서 올해 155만6000명으로 39%나 급증했다. 전라선은 35만2000명에서 57만2000명으로 62.5%, 경전선은 70만6000명에서 79만2000명으로 12.3% 증가했다. 경부선 이용객도 728만6000명에서 732만7000명으로 소폭이나마(0.6%) 늘었다. 이 기간 노선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호남선이 1만9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전라선이 6000명에서 1만명, 경전선이 1만2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경부선은 12만1000명에서 12만2000명으로 모두 늘었다. 거점적인 광주송정역의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4월 한달만 아니라 전 노선에서의 승객 증가를 불러 고속철도가 국민의 발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혜택이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은 공포에 떨게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고속철 상송세를 막지 못했다. 코레일 분석에 따르면 호남선 충북 오송~광주송정 구간이 고속철도화한 4월 2일 이후 지난 5월까지 95일간 호남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모두 220만1000명으로 일반선로를 탈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5년여 기간 검사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고, 검사 재직 기간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자세로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4회 2015
청소년축제
The 4th Youth Festival
2015. 8. 1 SAT 10:00~20:00 상무지구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행사장 일대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진로 탐색 및 작성상담 운영
신나는 체험활동관 운영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경품 이벤트

공연대회 모집 안내 교육부 장관상 및 각 기관장상 수여

모집분야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학교폭력 척결 영상 공모전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대상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7월 21일까지(영상, 포스터 부문)
7월 28일까지(공연, 농구대회 부문)

문의전화 062.220.0555 / 010.5156.5596

참가신청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주최 | (주)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No Bullying, Yes Bling!